

# “전북대 글로벌 혁신안, 지역 상생 선도모델”

### 이주호 교육부장관, ‘글로벌대학 간담회’서 “교육부 정책 방향과 부합... 적극 지원할 것”

“전북대학교의 혁신적인 글로벌대학 30 사업 계획들이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루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 교육 지원 정책을 전북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10시 30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의 혁신 모델인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많은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밝히고, 교육부가 글로벌대학30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전 전북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대학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글로벌대학30 사업 선정 대학들과 이 사업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달부터

각 지역을 돌며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대 백기태 기획처장이 새만금-전주·완주-익산·정읍을 삼각형으로 이어 전북대 지역별 캠퍼스와 산업체를 일체화하는 대학-산업도시 트라이앵글 조성 계획을 비롯해 기초 지자체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싱크탱크인 ‘JBNU 지역발전연구원’ 설립, 지역대학들과의 상생 방안, 폐교된 남원 서남대 캠퍼스의 재생,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입생 모집단위 광역화, 외국인 유학생 5천 명 유치를 통한 글로벌 허브대학 도약 등의 전북대만의 글로벌대학 혁신안을 브리핑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심보균 전북지방시대위원장, 백



21일 오전 전북대학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대학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서거석 교육감,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각 기관별 제안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현안 논의에서는 전북도, 전북교육청, 전주시, 남원시 등에서 글로벌사업에 대한 범지역적 협력의 뜻을 재확인했고, 특히 최경식 남원시장은 서남대

폐교 캠퍼스의 재생과 관련해 내년 추진되는 부지 확보와 전북대로의 관리 이점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30개 이상의 폐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지역발전을 우선에 두자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며 “전북대, 남원시의 서남대 폐교 부지를 재생하겠다는 혁신안이 지역발전의 선도모델이 되고,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도 잘 부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대학30 사업과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은 대학을 포함해 교육청과 지역 전체가 협력해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지역 상생 발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오봉 총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는 이주호 부총리님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글로벌대학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5년 후 우수인재들이 먼저 찾는 대학,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플래그십대학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블록체인 기업과 공동연구소 설립

### 전북대, 뱅코와 협약 블록체인 기술 등 공동 연구개발 나서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주)뱅크(의장 강대구)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과 미래형 디지털 금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소 설립에 나선다.

이들 위해 전북대와 (주)뱅크는 21일 오후 2시 전북대 대학본부에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 및 융합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가 디지털 경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긴밀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관련 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요소”라며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우리 전북대와 (주)뱅크가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관련 분야 연구개발과 우수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전주비전대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주목’

### 전주보훈요양원 방문 메이크업·사진 촬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 혁신 지원사업단이 주관한 2023년 기술 및 재능 봉사단이 지난 20일 전주보훈요양원에 방문해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 학생들은 헤어·메이크업을, 방송영상디자인과는 사진 촬영을 진행하여 전주보훈요양원 환우들을 대상으로 행복장수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환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재학생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디자인과 박용균 교수를 비롯해 미용건강과 이효숙 교수, 채병호 교수, 이나리 교수 그리고 전주비전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교직원도 포함하여 많은 학생 및 교직원이 함께하며 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김재훈 기자



## 국립군산대, 특수목적선 친환경 부품 개발 기술교류회

국립군산대학교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원장 정한규)이 중소벤처기업부·전북도가 지원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북테크노파크·전북지역사업평가단이 관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비R&D) ‘특수목적선 친환경·지능형 부품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기술교류회를 최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중소형/특수선박산업 기업 간 연계협력력을 통한 동반성장 체계 구축과 도내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기술지원 수혜기업을 비롯하여 도내 특수목적선 및 선박 기자재 관련 관계자들도 참석해 특수목적선을 중심으로 한 도내 조선해양산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최신 책임연구원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경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군산=김관근 기자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1일 전북도교육청에서 2023 임금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학비연대, 2023 임금 협약 체결... 파업 없이 합의안 도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1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서 2023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6만8,000원 인상 △근속 상한 22년

으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0만원 인상 △급식비 연 12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의 가족수당 지급 확대 △강사직군(초등스포츠클럽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유형 편입 등이다.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으며 총파업 없이 자율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 7년간의 집단임금교섭 이래 처음으로 부분 파업도 없이 연내

타결을 이뤄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게 됐다.

집단(임금)교섭의 대표인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용자의 의지와 노동조합도 한발씩 양보한 모범적인 임금 교섭의 사례를 썼다”면서 “향후에도 학교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노사간 합리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 전북형 창업패키지 협약·오리엔테이션

### 올해 15개사 선정... 최대 6000만원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일 전주대학교 대학 본관에서 전라북도과 전주시가 주관하는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사업 선정지를 대상으로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협약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형 창업패키지는 전북 지역특화산업 유망 기술 및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5년 이내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23일부터 4주간 모집 진행했으며 총 178개 사가 신청해 약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전문가 및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2단계(서면, 대면)로 평가 진행했으며 신청 기업들의 기술성 및 시장성, 지역사회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에 선정된 창업기업 15개 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발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협약,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사용 오리엔테이션, △창업기업-주관기관 네트워크, △전북



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간담회에서는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이 참석해, 전북도 특화산업 창업 및 참가기업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2023년 전북형 창업패키지 선정된 기업은 협약 기간 내 △시제품 제작, △인력 고용, △마케팅, △지사 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을 위해 시제품 제작비 최대 6,000만원 및 유동·판로·투자·수출 등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주대 창업지원단 공경태 단장은 “12년간 다양한 분야의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정기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인프라, 연계사업 등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전북형 창업 유니콘’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모두가 누릴 권리 내가 실천할 책임

### 도교육청, 학생 권리·책임 길라잡이 배부 학년 말 교육과정 1시간 이상 교육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교원과 학생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길라잡이 ‘모두가 누릴 권리 내가 실천할 책임’을 제작, 도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두가 누릴 권리 내가 실천할 책임은 학생들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소책자로 민주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학교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인권이 뭐예요? △제2장 학생인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3장 권리에 대한 이해, 책임에 대한 오해 △제4장

누리고 지켜야 할 우리의 권리와 책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중등 수업지도안까지 포함해 학교에서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각급 학교에서는 이번 배부하는 길라잡이를 활용, 학년 말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존중, 수업, 의사소통, 자치와 참여, 소유물, 비폭력, 전자기기, 용모, 징계, 휴식 등 10가지 사항을 내용으로 담았다”면서 “학생의 권리와 책임 길라잡이가 학교의 인권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개발과 교육으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대 작업치료학과, 올해 작업치료 국가고시 100% 합격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작업치료학과는 2023년도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작업치료학과(정문화 학과장)는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진 ‘2023년도 제5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졸업예정자 총 39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작업치료사는 의미 있는 활동인 작업(occupation)을 치료적으로 사용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건 의료 전문직이다.

작업치료학과 학과장 정문화 교수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교내·외 학생 활동(캡스톤디자인,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취업캠프 등)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고, 교수와 학생 간 지속적인 상담과 노력이 이번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는 국내·외 교육 인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과 다양한 진로를 위한 임상실습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선의 전공 지식과 윤리 의식을 갖춘 작업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